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인천 화장품산업, ICN 브랜드로 날개를 달자



인터뷰 :

(주)엔프라니 이주동 연구소장과의 만남



I/D/I/소/식



〈제9회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 대인환경제
권 형성 및 구축 가능성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이창
구)과 한국도시지리학회
는 지난 21일 송도국제
도시...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제30회 항공의 날 기
념 16차 항공안전과
Human Factor...

Zoom INcheon



왕궁과 화석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마성의
섬 장봉도
장봉도는 동서의 길이
가 약 8~9km이고 남
북의 폭은 1~1.5km
의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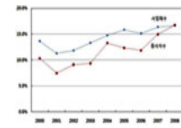
빛과 향수의 도시, 프
랑스 샤르트르
(Chartres)
프랑스 중부지역에 위
치한 샤르트르
(Chartres)에는 유네스
코가 19...

IDI연구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
황 및 발전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인
천 화장품산업의 현황
과 혁신역량을 분석하
여 향후 산...

인천지표



인천의 화장품산업 현
황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
2조에 따르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 화장품산업 ICN 브랜드로 날개를 달자

신하대 공대 생명화학공학부 김은기 교수

1. 티베트 여인의 교훈

수년전에 중국 티베트 지역을 한 달간 다녀 온 적이 있다. 오지에서 고생을 하였지만 그 여행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가지 제공했다. 그 여행의 목적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용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티베트지역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세계에서 유명한 고원지대이다. 3,500m의 고원에서는 햇빛도 강하고 따라서 자외선도 강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은 강한 자외선에서도 살아남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찾는 것이 연구목적의 여행의 목적이었다. 황량한 지역답게 인구도 희박하여 여의도 면적에 한명 정도 살만큼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다. 티베트는 대부분 유목으로 살아간다. 한참을 달려도 사람을 보기 힘든 너른 벌판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유목민 가족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얼굴에 기미가 가득한 여인은 실제 나이가 채 스물이 안 되었다. 어렵게 기념사진을 같이 찍고 돌아서는 나에게 그 여인은 엄지와 중지를 비비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였다. 얼마간의 돈을 주었지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여인의 요구는 절실하였고 그것은 다름 아닌 화장품이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아줄 이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 하루 벌어먹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여인이 요구한 것이 먹을 것도, 돈도 아닌 화장품이라는 사실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소설 제목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여인은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기에는 그 여인의 요구는 너무 절실하였고, 보아줄 이조차 없는데 왜 얼굴이 중요하냐고 돌려서 물어보기에는 그 여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아름다운 피부가, 티 없는 얼굴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본능이었다. 미에 대한 본능.

2. 화장품, 불멸의 성장산업

티베트 여인은 나에게 화장품이 과연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하였다.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 필요한 의약품의 연구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로 생각했던 나에게 그 여인은 한방을 먹인 셈이다. 잘 먹고 안 아프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람의 진짜 깊은 속에는 멋있게 보이는 자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려 준 사람이 티베트의 여인이었던 것이다. 이 티베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의 추구는 화장품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다. 화장품이란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기록이 있으니 수천년간 망하지 않고 지속된 몇 개 안되는 산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 기업은 흥망을 거듭할지 몰라도 화장품 산업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아니 인천지역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산업으로 채워진다면 어떠할까.

화장품은 이제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자들이 야성대신 감성을 택하는 경향이 늘면서 남성화장품의 시장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루밍족, 즉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시대적인 경향으로 남성화장품은 국내 매출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1조를 금방 넘어설 추세이다. 2010년 국내 시장이 7조원이니 이런 신장세라면 국내 시장을 늘리는 데에 남성들이 한몫을 단단히 할 것이라고 본다. 국내 제약시장이 14.7조원 수준이니 화장품 시장이 제약시장의 반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 시장이다. 화장품 시장이 큰 이유는 자명하다. 우리는 매일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를 보호하려고 얼굴에 매일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거의 일상적인 필수품이 되고 있다. 사실 어느 집에도 가도, 또는 지나가는 여성의 가방에도 약은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화장품은 늘 들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결국 티베트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화장품이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티베트여인이거나 미에 대한 욕망은 같다. 다만 도시는 공급이 원활하고 수입이 풍족해서 쉽게 쓸 수 있을 뿐이다. 화장품산업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인류와 같이 영원히 지속될 산업이다.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화장품, 최신 기술의 집결체

화장품은 최신 과학의 집결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어떻게 찍어 바르는 크림이 스마트폰과 같은 과학의 집결체냐고 반문한다. 예전의 박물장수 할머니가 집집에 팔러 다니던 ‘동동구리무’ 화장품은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는 정도로서 유성성분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이 화장품시장을 선도하면서 이제는 기술력이 화장품 시장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성 화장품인 노화방지 화장품과 미백화장품의 경우에는 약에 가까운 성능이 요구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약과 화장품의 중간정도에 해당된다. 다시 이야기해서 치료, 예방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란 의미로 Cosmetics와 Pharmaceutical의 합성어인 Cosmeceutical이라고 불리고 일명 Dr. Cosmetic이라고도 한다. 기능성 식품이 먹어서 약과 같은 효능이 있는 식품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연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백화장품을 보자.

미백화장품은 쉽게 검어지는 피부의 색을 백옥같이 희게 만들어주는 화장품이다. 주로 동양인들이 백색피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예로부터 동양미인의 기준이 가는 허리, 흰 피부(細腰雪膚)였던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사항으로 서양인들이 해변 백사장에서 피부를 갈색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은 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피부가 의학적 측면에서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보호반응이라는 것이다. 즉 태양빛속의 자외선(UV)에 의해서 피부의 유전자 DNA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는 검은 색소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이다. 검어지는 피부를 미용의 목적으로 희게 하려니 인위적으로 피부의 방어기작을 거슬러야 한다. 즉 피부의 색소를 감소시키고도 피부의 유전자를 보호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신호를 차단하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 즉 효소의 기능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색소의 기능인 피부보호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또 하나의 기술은 피부 침투이다. 기능성을 가지려면 일단 피부세포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피부는 가장 튼튼한 방호벽을 최외각에 가지고 있다. 즉 각질층을 형성하여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피부의 첫번째 기능인 보호기능이다. 그런데 기능성 성분은 여기를 통과해서 아래쪽에 있는 피부세포에 이 물질이 들어가서 세포의 색을 조절한다든지(미백화장품), 아니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노화를 방지해야 한다(노화방지 화장품). 이러한 기술은 피부생리를 잘 이해하고 연구해야 하는 생물공학적 지식, 즉 Biotechnology가 요구된다. 또한 잘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 성분을 나노입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노 사이즈의 물질로 둘러싸든지 해서 안정화시켜서 침투와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기도 하는 나노 테크놀로지(Nanotechnology)가 요구된다.

창조주가 잘 만들어 놓은 피부장벽을 침투, 통과해야 하는 인간이 만든 기능성 화장품, 가히 창과 방패의 대결이고 모순(矛盾)의 과학이다. 과연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가장 정교한 방호막을 뚫고 자연적인 현상인 색소를 조절하는 피부의 오묘한 장치를 화장품과학은 극복할 수 있을까. 세기의 대결이 흥미롭다. 결국 이러한 도전 속에서 소재는 향상되고 진보한다. 소재의 개발이 기능성 화장품, 곧 21세기의 화장품을 선도할 것이다.

4. 인천 화장품, ICN 브랜드로 성장하자

화장품산업은 성장성이 크고 과학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인천은 어느 면에서 화장품산업의 부흥에 강점이 있을까? 인천은 화장품 기업이 전국 484개중 80개가 몰려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있는 셈이다. 또한 화장품산업 종사자의 17%가 인천에서 일하고 있을 만큼 산업인구 집약도가 높다. 다른 산업이 5%대인 것을 고려하면 인천에는 전국 평균 3배의 화장품 산업인력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산업인력 이외에 연구 인력으로 4개의 대학, 2개의 전문대의 대학 연구인력이 있다. 이 정도면 인력면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 셈이다. 남동공단,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존 시설, 산업 인프라를 합치면 사람, 돈은 충분한 셈이다. 화장품 산업은 우선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의 소재란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처럼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혹은 노화방지제 자체를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재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기업에 3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이 놀라울 뿐이다. 남동공단의 화장품 기업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피부소재, 기능성 화장품소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이 있다. 기업 고유의 소재가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 인천지역의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서 나온다.

인천지역은 화장품 산업인력도 밀집되어 있고 소재도 개발될 수 있는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천 고유의 커다란, 아주 큰 장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천공항이다. 화장품 산업은 소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큰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소재를 사용해도 인지도가 없으면 쉽게 시장침투를 못한다. 인천공항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브랜드이다. 만약 ICN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만든다면 사람들은 그 화장품에 어떤 의미를 줄까? 인천공항의 신뢰감, 안정성, 긍정성 모든 플러스의 요인이 ICN에 녹아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브랜드는 없다. 인천지역에 확실한 브랜드가 없는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들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가장 큰 매력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통하여 오고 가는 외국인들에게 공항에 인접하여 Cosmetic Valley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곳을 관광코스처럼, 아니면 잠시 들러서 피부 마사지나 스킨케어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ICN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정부 중앙 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다. 금년 정부 주도의 화장품산업발전 연구재단 설립에서 인천이 제1의 후보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여러 이유로 유치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하지만 인천의 화장품산업은 인천시가 희소 금속, 자전거산업 등과 함께 인천을 선도할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밝힐 만큼 발전성이 높다(2010. 1. 13. 조선일보).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도시이다. 21 세기는 중국이 세계시장 경제를 선도할 것이다. 그 세계 제일의 거대한 시장이 인천의 바로 코앞에 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화장품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목도 많지 않다. 한류의 물결이 중국을 통해, 아시아를 뒤덮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거기의 한가운데에 인천공항, ICN 브랜드가 있다. 인천지역의 화장품 산업은 이제 날개를 달아야 할 때이다.

수년전에 중국 티베트 지역을 한 달간 다녀 온 적이 있다. 오지에서 고생을 하였지만 그 여행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가지 제공했다. 그 여행의 목적은 피부에 좋은 화장품용 약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티베트지역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세계에서 유명한 고원지대이다. 3,500m의 고원에서는 햇볕도 강하고 따라서 자외선도 강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은 강한 자외선에서도 살아남는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찾는 것이 연구목적의 여행의 목적이었다.

인천 화장품,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도약해야

인천 화장품,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도약해야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트리에 5호에서는 (주)엔프라이 이주동 연구소장을 만나 인천에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집적하게 된 배경과 인천 화장품산업의 강점과 약점 및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자원해주어야 할 부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 화장품산업의 잠재력과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화장품업체가 세 배 정도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화장품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집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인천 화장품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80년대만 하더라도 인천에는 화장품업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헤어제품 위주의 영세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이후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화장품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여기에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화장품업체들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천이 물류 측면에서 국내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 가깝고 부천 등지에 입지한 부자제업체들과의 연계도 용이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기업들이 집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천 화장품산업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현재 국내 화장품시장은 거의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화장품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원재료 및 완제품의 수출입이 대부분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좀더 빠른 운송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의 화장품업체들이 나름대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의 송도지역이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있고 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의 볼로냐처럼 세계적인 화장품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화장품 관련 비즈니스를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 유명 화장품업체들의 관심과 방문이 잇달아 인천 화장품산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그럼 반대로 인천 화장품산업의 약점이나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화장품업체들은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제품력이 충분합니다만 그런 기업들의 수출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기업은 해외에 지사나 지점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의 수출 인프라가 갖추어진 반면에 작은 업체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출하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 화장품기업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 R&D 규모도 작고 새로운 기초연구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는 소재, 피부, 임상, 생산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야 하는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한 부분에만 강점이 있어서 총괄적인 개발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인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어느 부문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세계 화장품시장은 연 4%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화장품시장은 연 8%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이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화장품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지적 조건이 우수하고 기업들의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리고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의 지원은 특정 R&D 지원보다는 해외 화장품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현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화장품 박람회를 인천에 유치하는 것도 인천 화장품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천 기업들의 R&D와 마케팅, 물류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인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전략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이나 물류산업에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이제는 화장품산업에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대담 : 이권형(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기록 : 장순지(시장연구협력센터)

인천발전연구원 웹진 '아뜨리에' 51호에서는 (주)엔프라니 이주동 연구소장을 만나 인천에 화장품업체들이 많이 집적하게 된 배경과 인천 화장품산업의 강점과 약점 및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지원해주어야 할 부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 화장품산업의 잠재력과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제9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대인천경제권 형성 및 구축 가능성 논의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우리 연구원 주최 〈제9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 대인천경제권 형성 및 구축 가능성 논의

우리 연구원(원장 이창구)과 한국도시지리학회는 지난 21일 송도국제도시 송도파크호텔 릴리홀에서 〈제9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한·중·일 주요도시간의 상생과 협력을 모토로 2002년부터 한·중·일 도시정책 전문가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원으로 "한·중·일 거대도시지역의 네트워크 구조 비교"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야오 스모우 교수(중국과학원)는 인천의 경우,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거대지역과 베이징과 톈진이 서로 협력하는 중국 수도권권의 사례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노

마사테루 교수(도호쿠대학 대학원)는 대인천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천은 중심도시의 존립노력과 자기중심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 강승호 박사(동북아 물류연구실)는 통근통행이라는 유동지표를 분석하여 수도권과 인천의 공간구조와 고용중심성을 고찰하고 대인천경제권 형성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제발표를 통해 많은 정책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제9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은 중국, 일본의 사례를 한국의 수도권, 인천의 분석과 함께 비교·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된 자리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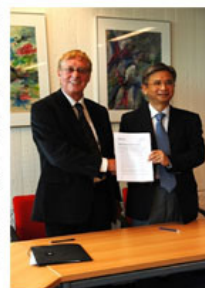
■ 우리 연구원-호치민개발연구원 연구교류 "호치민, 인천을 배우다"

지난 25일, 베트남 호치민개발연구원의 응웬 쩡 호아(Nguyen Trong Hoa) 원장을 비롯한 12명의 간부급 연구진들이 우리 연구원(원장 이창구)에 방문했다. 우리 연구원과 호치민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연구교류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연구교류의 일환으로 호치민개발연구원의 원장 일행이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들과의 간담회 및 전공분야별 토론, 관내시찰 등을 통해 인천의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례조사를 하게 되었다. 한편 호치민개발연구원(Hochiminh City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은 호치민시인민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연구기관으로 2008년 설립되어, 사회경제발전 분야 전반에 걸쳐 호치민 시정부에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과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남부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4개 부서(경제개발, 경제관리, 문화 및 사회개발, 도시개발)와 3개의 센터(경제비즈니스정보교육자문센터, WTO자문센터, 도시계획연구소) 등에 90여명의 연구자를 포함한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호치민개발연구원 원장 일행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학술교류와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물론 양 도시 간 교류의 확대와 발전을 기대했다.



■ 우리 연구원-에라스무스대 도시계획 연구협력의 길 열려 글로벌 연구역량 성장에 기여할 것

우리 연구원(원장 이창구)은 최근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의 유럽비교도시연구소와 상호 연구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식은 에라스무스대학교 접견실에서 개최됐으며 니코 반 데르 빈트(Nico van der Windt) 에라스무스대학교 이사회 이사장, 키스 반 루젠(Kees van Rooijen) 주택개발연구소 소장, 크리스 데 랑에(Chris de Lange) 로테르담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은 도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또는 패널 참가, 학술 및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정보의 교류,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정보교환 등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심분야인 산업경제를 비롯해 도시계획, 불류 등의 분야에 대한 학술 및 연구협력 이외에도 연구 및 조사활동의 상호 자원, 인원교류, 국제프로젝트의 공동참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인천발전연구원은 중국(천진, 대련, 청도, 산둥, 선전), 일본(가타큐슈), 호주(시드니), 베트남(호치민) 등의 학술, 연구기관과 연구교류 협정을 맺은데 이어 대륙별 연구교류 거점기관 확보 차원에서 유럽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동북아에 편중된 연구교류 경향이던 미국, 일본에 편향된 사례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지식경제 산업클러스터 정책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다양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럽지역에 연구교류 거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의미 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해외연구교류기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 타 연구기관에서도 자문과 협의를 요청할 정도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 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역량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제안

인천의 발전 비상을 위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의 해결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게시판’ (<http://www.idi.re.kr/participation/>)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대상 및 분야

- 제안대상 : 인천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 누구나 가능함
- 제안분야 : 도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중심의 과제
(단, 상업적 용도의 기술개발 등의 과제 지양)

※ 제안에 주신 연구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업 계획 수립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내부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연구과제 연구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연구원(원장 이창구)과 한국도시지리학회는 지난 21일 송도국제도시 송도파크호텔 릴리홀에서 <제9회 한·중·일 공동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한·중·일 주요도시간의 상생과 협력을 모토로 2002년부터 한·중·일 도시정책 전문가를 초청,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으로 “한·중·일 거대도시지역의 네트워크 구조 비교”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 '제30회 항공의 날 기념 16차 항공안전과 Human Factor 세미나' 개최(10.27):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창립 5주년 기념 2010 여성인적자원 포럼 개최(10.27):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 「제9차 도시·건축정책 포럼」개최(10.29):국토연구원 031-380-0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 개최(10.29):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000

◆ [국제심포지엄]글로벌 파트너십과 아시아 여성: 나눔, 동행, 봉사의 파트너십 (10.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 '제30회 항공의 날 기념 16차 항공안전과 Human Factor 세미나' 개최(10.27):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 창립 5주년 기념 2010 여성인적자원 포럼 개최(10.27):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 「제9차 도시·건축정책 포럼」개최(10.29):국토연구원 031-380-01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 개최(10.29):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380-8000 ◆ [국제심포지엄]글로벌 파트너십과 아시아 여성: 나눔, 동행, 봉사의 파트너십(10.29):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왕궁과 화석과 전설이 살아 숨쉬는 마성의 섬 장봉도



장봉도는 동서의 길이가 약 8~9km이고, 남북의 폭은 1~1.5km의 지형으로 형성된 섬으로 면적은 6.7㎢이다. 중앙지점에 해발 149m의 국사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줄지어 뻗어 나간 높고 낮은 외줄기 산봉이 길게 지봉을 이루고 있어 '장봉'이란 지명을 얻었다.

장봉도의 역사

〈지명〉 장봉도의 지명은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그리고 신승동국여지승람 같은 옛 문헌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려사에서 우리는 몽고와 침공할 때 장봉도에도 강화도와 같이 왕궁을 세우고 임금이 거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더욱더 놀라운 장봉도의 역사를 알게 한다. 고려 고종18년(1231년)에 몽고와 침공하자 다음해에 왕도인 송도(지금의 개성)를 버리고, 강화도로 왕도를 옮기고 수전에 약한 몽고군과 장기전을 계획하고 항몽전에 임했다. 이때 7차례에 걸쳐 몽고의 침공으로 전국은 황폐화, 초토화 되었다. 그러나 강화도만은 침공하지 못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마저 함락하게 될 것에 대비해 장봉도에 왕궁(별궁)을 세웠던 것이다.

〈장봉궁터〉 장봉궁터가 장봉도의 어느 쪽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전해오는 옥당물(형옥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위치는 절터골 동쪽 국사봉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봉도는 국난을 당했을 때 임시왕도인 강화도 못지 않게 왕실을 지키고, 백성을 건진 호국의 고장인 것이다. 5000년 역사를 통해 다른 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봉도에서만 있었던 일이어서 옛 장봉도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장봉도는 갑오경장 이후 강화군 제도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에 부천군으로 편입되었으며 4개의 섬을 북도면으로 편성했고, 장봉도는 북도면 중 1개의 법정리로 되었다. 1960년법정리를 행정리로 분리하면서 웅암마을을 장봉1리, 평촌마을을 장봉2리, 진촌마을을 장봉3리, 싸릿골마을을 장봉4리로 분리하고, 1968년 8월 20일 북도면 장봉출장소를 장봉2리 평촌마을에 설치하였다.

장봉도의 산업

장봉도는 총 1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장봉본도만 유인도로서 약 350세대, 1,000여명이 살고 있다. 또한 주민의 35% 이상이 65세이상의 노령인구이다. 장봉도의 산업분포를 보면 농업이 약 40%, 포패업이 약 40%, 관광업이 20% 정도이며 한때 전성기를 누렸던 어업은 극소수로 쇠퇴했다.

장봉도 내 유관기관으로는 -삼목 초등학교 장봉분교 -북도면 장봉출장소 -해양경찰 장봉통제소 -경찰 장봉출장소 -웅진농협 북도지소가 있다.

장봉도의 특별함

7,000년전 문명의 화석이 살아 있는 고

7,000년간 문명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 고려 고종과 충열왕이 거처한 왕궁의 섬
- 우리나라 최초로 수산물(홍자 건하)을 홍콩으로 수출한 섬
- 조선시대 마성의 섬
- 장봉도에 숨쉬는 인어의 전설이 전해지는 섬
- 고기떼가 날아다니던 3대 여왕의 섬
- 우리나라 복음이 시작된 한국 기독교의 성지
- 세계적인 회귀조 노랑부리 백로와 갯이 갈매기 서식지



웅진군은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유인도가 25개이며 나머지 75개의 섬은 무인도이다. 기암괴석과 바다, 그리고 심청이 전설과 인어 전설 등 무한한 관광자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까나리 액젓, 꽃게, 송어, 바지락, 대하, 김 등이 매우 유명하다. 농산물 역시 당도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포도, 장뇌삼, 곰취 그리고 질 좋은 오리무농약친환경쌀 등 웅진군만의 자랑거리가 많다. 그리고, 소박하고 순진하며 정 많은 주민들까지... 가슴 가득 훈훈한 온기를 채워갈 수 있는 웅진군 북도면의 산·시·모도, 장봉도 등 정겨운 섬으로 떠나보자. 늦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찾아가는 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영종대교를 지나 첫번째 IC에서 빠져나와 약 5km 직진 후 우회전하면 삼목 선착장에 다다른다. 선착장에는 신도를 거쳐 장봉도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으며 수시 운항된다. 차량이 많을 때는 장봉도와 신도를 따로 운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휴일엔 차량이 많아 어느 정도 기다릴 각오를 하는 것이 좋다. 차량 도선이 가능하고 일일 약 12회 삼목-신도-장봉을 운항하며 주말과 공휴일일 경우 수송량에 따라 수시 운항하며 운임은 대인기준 삼목-신도 약 3,600원, 삼목-장봉 약 5,500원이다. (배편 문의: 새중해운 032-884-4155)

※ 2008년 9월 1일부터 인천시민은 운임비용 50% 할인

장봉도는 동서의 길이가 약 8~9km이고 남북의 폭은 1~1.5km의 지형으로 형성된 섬으로 면적은 6.7km²이다. 중앙지점에 해발 149m의 국사봉으로 중심으로 동서로 줄지어 뻗어 나간 높고 낮은 외줄기 산봉이 길게 지붕을 이루고 있어 '장봉'이란 지명을 얻었다.

빛과 향수의 도시 프랑스 샤르트르(Chartres)



프랑스 중부지역에 위치한 샤르트르(Chartres)에는 유네스코가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시에 포함된 샤르트르 대성당(Chartres Cathedral)이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은 12~13세기의 역사적 독특함이 존재하는 고딕 양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된 창이 인상적이다. 샤르트르에는 국제 스테인드글라스센터(International Stained-Glass Centre)도 자리 잡고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샤르트르 대성당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빛과 향수를 주제로 한 축제(the Festivals of Light and Perfume)를 개최함으로써, 빛과 관련된 도시경관으로 하여금 관람객을 이끌고 있으며, 화장품 및 향수에 대한 코스메틱 벨리(Cosmetic Valley)가 조성되어 있어, 빛과 향수의 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다.



프랑스가 향수로 대표되게 된 것은 샤르트르 및 주변지역에 코스메틱 벨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화장품산업 생산액 중 약 70%가 코스메틱 벨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벨리는 60년대 향수업체인 파베르제(Faberge)가 프랑스 중부의 샤르트르(Chartres) 지역에 연구 및 생산시설을 구축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이후 랑케스터(Lancaster), 겔랑(Guerlain), 파코 라반(Paco Rabanne),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디올(Dior), 시세이도(Shiseido), P&G(Procter & Gamble), 유니레버(Unilever), 시슬리(Sisley) 등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이 샤르트르 및 파리 주변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화장품 원료, 포장, 물류 등 관련 중소기업 및 연구소, 훈련기관들이 함께 집적되면서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의 프랑스 현지법인(Pacific Creation) 또한 샤르트르에 입지하고 있다.

이 지역이 코스메틱 벨리로 불리게 된 것은 샤르트르 지역에 위치한 화장품기업들과 외르-에-루아르(Eure-et-Loir) 지역의 경제발전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가 1994년 코스메틱 벨리 협의회(Cosmetic Valley Association)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프랑스 정부의 R&D 지원정책에 따라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Competitive Cluster)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 기준 7,500만 유로 규모의 41개 R&D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코스메틱 벨리는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인천광역시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코스메틱 벨리 내에 완제품 생산 기업만이 아닌 원료 생산업체, 포장업체, 운송업체 등이 함께 집적되어 있고, 또한 생산 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 이외에 연구기관, 대학, 훈련기관 등 연구 및 교육에 특화된 기관들이 같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로 생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집적되어 있는 인천의 산업단지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형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을 위해서는 샤르트르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근거리에 모여 있으면서 적시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중부지역에 위치한 샤르트르(Chartres)에는 유네스코가 197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시에 포함된 샤르트르 대성당(Chartres Cathedral)이 있다. 샤르트르 대성당은 12~13세기의 역사적 독특함이 존재하는 고딕 양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로 된 창이 인상적이다. 샤르트르에는 국제 스테인드글라스 센터(International Stained-Glass Centre)도 자리 잡고 있다.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I.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혁신역량을 분석하여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 화장품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새로운 도시형 산업클러스터(urban industrial cluster)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I. 연구 결과

-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생산규모별 현황을 보면 5,000억원 이상의 업체수는 전체 644개 기업 가운데 2개사에 불과하지만 생산금액은 국내 총생산금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미만의 업체수는 488개인데 비해 생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한 양극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화장품산업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고 원료, 소재, 원천기술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함.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나 브랜드 홍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미흡함
- 중앙정부는 2013년까지 화장품산업 10대 국가로 성장하고 2018년까지는 26조원의 시장규모와 2.2조원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여 글로벌 7대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인천은 경기도 지역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천 소재 업체는 2008년 기준 80개로 전국 482개중에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천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업체당 고용 규모도 2008년 기준 21.8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만 충북이나 충남지역의 52명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인천 화장품산업의 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비전 및 환경, 지식집적기반, 인적 및 기업자원 부문이 다른 2개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책환경과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부문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인적 및 기업자원 부문이 23.3%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부문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산업비전 및 환경, 지식집적기반, 정책환경 등 혁신환경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냄

III. 정책건의

- 인천 화장품산업의 발전 비전으로는 국제 표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뷰티서비스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통해 화장품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 비전은 중장기적인 산업 연관의 시각에서 보자면 단지 화장품산업 자체에 끝나지 않고 최근 첨단 지식기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인천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측면에서 ISO GMP 기준의 생산공장과 후술할 인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원료 품질 검사, 생산 관리를 위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ISO GMP 생산시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천 화장품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안전한 화장품으로서의 품질인증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ISO GMP 생산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설립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원료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간 사용일정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간 상호조정이 필요함

○ 인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칭)는 공공기관으로서 인천 화장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총괄하여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집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지원센터는 연구개발, 신소재 개발, 제조 및 생산, 수출시장 개발, 브랜드 홍보 및 네트워크 협력 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함

○ 화장품산업은 뷰티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뷰티서비스업체들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성형, 치과 등 의료서비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장품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음. 또한 화장품 기업들은 뷰티서비스업체들의 고객을 통해 화장품 개발 후의 테스트 마켓(test market)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음

○ 인천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시설과 송도국제도시의 지원기관이 이미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인천국제뷰티가든(가칭)을 조성해놓고 뷰티서비스 체험시설을 유지하여 생산시설과 지원기관이 연계되도록 한다면 화장품산업 및 모든 관련 산업이 집적된 인천 코스메틱 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인천 화장품산업은 제조업 위주의 클러스터와 서비스업 위주의 클러스터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연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인천국제뷰티가든에는 뷰티서비스업 관련 각종 브랜드숍 이외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산업적 차원에서 전후방 연관효과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적 차원에서 수직적·수평적 통합 또는 다양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브랜드 차원에서는 브랜드 확장(brand extension)을 통해 뷰티 가든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화장품산업은 화장품 소비 및 연구개발 트렌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최근 제도화되고 있는 ISO GMP 등에 대한 전문지식, 외국어능력, 뷰티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므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혁신역량을 분석하여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천 화장품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새로운 도시형 산업클러스터(urban industrial cluster)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10년 10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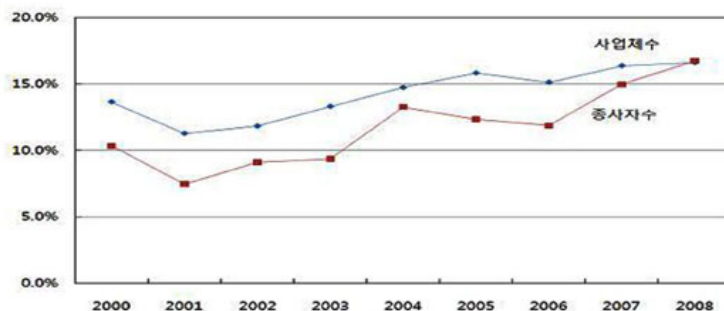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화장품산업 현황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천은 경기도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8년 기준 80개로 전국 482개중에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1,741명으로 전국의 16.7%에 해당한다. 전국대비 인천시 전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각각 4.8%, 4.7%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전국 대비 인천 화장품제조업 비중 추이(2000~200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주: 전국 화장품제조업 대비 비중임.

또한 인천지역의 화장품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2008년의 5년간 인천시 화장품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1.7%, 7.8%인 반면에 동기간 전국수준에서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6.9%, -4.1%로 나타났다.

〈표 2〉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 추이(2003~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위: % 연평균 성장률
사업체 수	인천	24.3	15.2	17.0	4.8	12.3	9.6	11.7
	전국	10.5	4.0	8.9	9.7	3.7	8.1	6.9
종사자 수	인천	-0.4	40.6	-12.5	2.6	1.0	14.1	7.8
	전국	-3.1	-0.8	-5.9	6.7	-20.0	2.1	-4.1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주: 연평균 성장률은 2003~08년의 5년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그러나 인천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평균적인 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인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비중은 전국 대비 14.7%인 데 비해 생산금액의 비중은 3,73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금액 4조 7,201억원의 7.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업체당 생산금액은 44억원으로 경기도 지역의 업체 평균 생산금액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지역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업체당 고용 규모도 2008년 기준 21.8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만 충북이나 충남지역의 52명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그만큼 인천지역에 생산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되어 있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3〉 주요 지역별 업체수 및 생산금액 비교(2008)

단위: 개, 백만원, %

	기업 분포		생산		업체당 생산금액 (B/A)
	업체수(A)	점유율	금액(B)	점유율	
인천	85	14.7	372,956	7.9	4,388
경기	222	39.5	1,777,443	37.7	8,007
충북	44	7.6	1,227,471	26.0	27,897
충남	42	7.3	529,047	11.2	12,596
소계	393	68.1	3,906,916	82.8	9,94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대한화장품협회(2009),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육성방안 연구.
주: 점유율은 국내 총제조업체수 577개 및 총생산금액 4조 7,201억원에 대한 비율임.

<표 4> 주요 지역별 화장품 제조업 업체당 종사자수 추이(2003~08)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천	26.0	31.8	23.8	23.3	20.9	21.8
경기	23.4	22.2	20.7	18.1	19.0	17.5
충북	42.9	57.8	37.3	47.6	45.6	52.7
충남	54.1	52.3	43.6	48.4	46.3	52.2
전국	37.0	35.3	30.5	29.5	22.9	21.6

자료: 전국 사업체 조사.
주: 종사자수를 업체수로 나눈 것임.

*이 통계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생산실적을 보고한 기업 기준으로 작성되어 화장품 제조업체수가 앞서 언급한 전국사업체조사의 수치와 상이하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천은 경기도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8년 기준 80개로 전국 482개 중에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1,741명으로 전국의 16.7%에 해당한다.